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2019학년도 제3차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 8. 12(월) 16:00 ~ 17:0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중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위원장 및 위원(5명) : 조기석,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유정은
 - 간 사(1명) : 최호준
 - 불 참(2명) : 문승현, 윤이식
4. 회의 안건
 - 기본재산(토지) 취득에 관한 건
 - 적립금 사용 및 기채승인에 관한 건
 - 기타 학교 현안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조기석 위원장 교직원 2인, 학생대표 2인 이상의 출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기본재산(토지) 취득에 관한 건
 - 조기석 위원장 : 기본재산(토지) 취득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하고자 함.


서명 :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주요발언>

○ 조기석 위원장 : 이번 등심위의 안건은 약 200평 규모의 외대 앞 신호등 건너편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학교 교사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안건임. 토지 매입비용은 약 120억 정도이며,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약 10억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약 3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됨. 기존의 적립금 약 76억원과 사학진흥재단에 53억원 용자를 통해 130억원을 확보 할 수 있음. 이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쳤으며, 조금 전 대학평의회에서도 논의를 마쳤고 이번 등록금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함.

○ 유정은 위원 : 위의 안건이 심의 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 문의함.

○ 조기석 위원장 : 심의 의결 사항임.

○ 유정은 위원 : 토지 취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문의함.

○ 조기석 위원장 : 건물 신축 시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1층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부족한 강의실, 스튜디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유정은 위원 : 위원장님께서 강의실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는 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모니터, 학생이 접속하는 곳이 곧 강의실이라고 할 수 있음.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원활하게 수업을 수강하게 하고, 시험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산적인 불안감을 해소 하는 것이 강의실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개선 없이 갑자기 왜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임.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재 사이버관도 8층 건물인데 현재 강의실이 왜 부족한 것인지 또, 신축 도서관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토지를 무슨 이유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인지, 누가 매입하자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음.

○ 노문이 위원 : 사이버 수강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확충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고려해야 함.

○ 유정은 위원 : 총학 입장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임.

○ 노문이 위원 : 그동안 학교 측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이버 환경에 대한 개선을 미뤄왔었는데 갑자기 토지매입을 이야기 하는 것이 당황스러움. 학생들을 위한 해외 문화탐방도 점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유정은 위원 :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누구의 의견인지 알려주기 바람.

○ 조기석 위원장 : 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본 안건은 교사 등을 확보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축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홈페이지 개선 및 해외 문화탐방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됨.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음.

○ 유정은 위원 : 저희 학생 위원들은 현재 학교의 상황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저희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5천명 재학생들이 이 건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진정란 위원 :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두개를 호환해서 쓸 수 없는 규정이 있음. 우리가 자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는 근본적

서명 :  김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으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이번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 토대가 되어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음. 학생위원들이 말씀하신 시스템 개선이나 해외 프로그램 확대는 이번 안전과 별도로 내년 예산 책정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음.

○ 유정은 위원 : 부족자금은 대출을 받겠다는 것인지 문의함.

○ 진정란 위원 : 정문 건너편에 외대 글로벌 홀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듯이 긍정적으로 보면 캠퍼스가 학교 밖으로 확장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함.

○ 노문이 위원 : 건물을 신축할 경우 수익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손해가 나는데도 건물을 짓는다면, 더군다나 부채를 안고 매입을 한다면 이 건물 빚덩이 건물이 될 수 있음.

○ 진정란 위원 : 학교 측에서 수익을 내도록 할 것임.

○ 노문이 위원 : 다른 회의에서 논의된 바로는 교수 연구실,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용도임.

○ 조기석 위원장 : 건물 1,2층은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김희진 위원 : 신축 건물 7층 모두를 수익사업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문의함.

○ 조기석 위원장 : 그건 교사를 확보한다고 볼 수 없음.

○ 진정란 위원 : 대부분을 교사로 사용을 해야 하며 그 일부분만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음.

○ 노문이 위원 :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대신 그 자금으로 현재 사이버관의 공간을 더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문의함.

○ 진정란 위원 : 외대와 각각 투자를 해서 사이버관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임.

○ 유정은 위원 : 1층의 올리브영이나 아티제 수입은 현재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인지 문의함.

○ 진정란 위원 : 외대에서 가져가고 있음. 건물 신축 시 양 쪽에서 자금을 얼마나 내고 신축하였느냐에 관련된 내용이라 복잡한 문제임.

○ 노문이 위원 : 건물 신축 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배정이 되는지 문의함.

○ 조기석 위원장 : 학생 복지시설 및 동아리, 총학생회실 등에 대한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매입한다고 봐주시기 바람.

○ 진정란 위원 : 현재 교육의 흐름이 오프라인 부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의실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K-study 센터 운영의 경우 강의실 수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토지 매입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됨. K-study 센터에서 현재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경우 강의실을 활용하여 일부 수익활동도 할 수 있음.

○ 노문이 위원 : 지역학습관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문의함.

서명 :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 진정란 위원 : 지역 학습관의 경우 타 학교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임. 지방모임 지원 등 다른 부분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 됨.

○ 김희진 위원 : 조금 전 대학평의원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안건이고 지금 계속 비슷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음. 이 사항에 대해 찬성/반대의 의견을 표현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함.

○ 진정란 위원 : 심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으니 의결하면 될 것 같음.

○ 김희진 위원 : 조금 전 대학평의원회에서 전체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주셨음. 또한 자금 현황, 필요 자금, 사용 목적, 건물 규모, 재단의 지원 여부 등 부족한 정보가 너무 많음.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지는 것 보다는 우리의 규모에 맞는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의견도 있었음. 대학평의원회에서 모든 교수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 할 수밖에 없음.

○ 노문이 위원 : 현재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며,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용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반대임.

○ 조기석 위원장 : 등록금을 사용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며, 적립금을 사용하여 매입하는 것임.

○ 진정란 위원 :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단계인지 문의함. 또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가/부가 전달이 되면 100% 반영이 되는 것인지 문의함.

○ 조기석 위원장 :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을 거쳐 이사회, 교육부 기채 승인 등의 절차가 있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1로 찬성 의견이 나왔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가 진행됨. 다음 단계에서의 가/부는 현재 알 수 없음.

○ 김희진 위원 : 위원장의 의견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문의함.

○ 조기석 위원장 : 단기적, 장기적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음. 사이버대학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대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임.

○ 진정란 위원 : 본인의 의견은 반반이라고 생각함. 토지매입에 관한 재원은 건축기금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음. 만약 수익서이 좋은 상가를 산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학생팀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공간에 대한 부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신축 도서관의 공간도 분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이버관 공간을 더 매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학교 바로 앞 토지를 사는 것은 분명 득이 될 것임. 다만 기채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함. 본인에게 가/부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세모임.

○ 김희진 위원 : 예전 사이버관 신축을 논의했을 때 모든 교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의사결정 하였음. 대학평의원회에서 계속해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찬성 의견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함. 또한 건물 신축자금 30억은 굉장히 과소로 책정된

서명 :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류정은

윤이식

금액이며 구체적인 신축 계획도 지금 없는 상황임. 현재 작성된 보고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움.

○ 조기석 위원장 : 현재 세분은 반대, 한분은 중립의 의견을 표력 해주셨음. 건물을 짓는다면 장기적으로 분명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조기석 위원장 :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1:3으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 짓겠음.(찬성: 조기석 위원장, 반대: 김희진, 유정은, 노문이 위원, 기권: 진정란 위원).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음.

2) 기타 학교 현안

○ 없음.

7. 폐회선언

○ 조기석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

서명 :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